

미국무부, 파룬궁박해자 비자 발급 제한 예정

[밍후이왕] 최근 파룬따파 밍후이왕은 하나의 중요한 통고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종교 및 신앙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권 및 종교 박해 가담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가족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되며,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영주권 소유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밍후이왕은 국내외 모든 대법 제자들이 즉시 행동해 박해자 명단을 더욱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밍후이왕에 제출하고, 다음 미 국무부에 올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는 가해자 본인과 친인척, 자녀, 자산에 관한 정보다.

통고는 또 해외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국공산당의 해외 박해에 가담한 자들의 본인과 친인척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대만, 홍콩, 한국, 스페인 등 각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따지위안(大纪元)기자에게 보내는 답변 메일에 이렇게 썼다. “미국은 그런 인권과 종교 박해자 개인이 미국을 피난처로 만들 수 없게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릴 것이다.”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문제를 겨냥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장기적인 정책을 취한다. 미국정부에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인권유린자를 문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이든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든 오직 좋은 사람 박해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그들도 추방당하게 된다.

'박해자' 범위에는 직접 박해를 가한 중국공산당 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인척, 자녀 그리고 나쁜 일에 동참해 중국공산당 박해를 협조한 해외 교단과 특무, 건달, 깡패, 악의적으로 중국공산당에 파룬궁수련생을 고발하고 상금을 받은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공산당은 20년간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실시했는데 파룬궁은 가장 엄중하게 박해 받은 단체이다. 그때 장쩌민(江泽民)은 파룬궁문제를 관원들의 승진과 연계시켰기에 많은 중국공산당 관원과 보통민중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두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 참여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면적으로 몰락했다. 인심이 예전과 같지않고, 도덕이 마비되고, 사회 혼란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중국관원은 “소리없이 큰 돈을 벌

라”는 사악한 지령에 모두 탐오와 부패에 빠지고, 색정이 범람한 “5 독관원”이 돼 버렸으며, 중국의 경제는 급속히 붕괴에 도달했다.

중국공산당 각급 관원은 이미 퇴로를 남기고 자산을 전이

중국공산당은 이미 말로에 빠져 사분오열에 뒤흔들려, 큰 배는 만신창이 되어 가라앉게 되었다. 많고 많은 중국 각급 관원은 모두 조용히 자기의 퇴로를 남겨 해외에 자산을 전이하고 친인척을 안착시켰다. 중국공산당 관원이 걸으려는 미국이 가장 흉악하다고 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우선 목표는 여전히 미국이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최고위층——중국공산당 정치국을 보더라도 그들도 가족을 해외에 이민했다. 중국 민간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 여명의 중앙위원 중 91%가 가족을 해외에 이민했고 심지어 외국 국적을 가졌다. 그리고 중공 기율위원회 성원 중 88%가 친속 자녀를 해외에 이민했다.

홍콩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숨어있는 중공탐관오리가 7000 명을 초과하는데 적지않은 중국공산당 고위층관리와 군장교들도 포함한다. 그들은 미국에 아주 많은 자금을 (4 면에 계속)

원환 지진,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그 시각

글/중국대륙 대법제자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진이 점차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에 가득 하던 사람 중에는 그들 둘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

[밍후이왕] 저는 퇴직 여 엔지니어이고 올해 78 세이며, 아들과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지 20 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20 여 년 중에서 사부님의 법광은 우리 온 가족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특히 머느리는 한번 위험에서 뺏어난 일을 경과한후 그때로부터 따파(大法)를 지지 합니다.

2008 년 5 월 12 일, 머느리가 쓰촨성의 원환으로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머느리는 이 기회에 한 동료와 함께 칭청산(青城山)에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시아버지가 머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밖에 나가면 무슨 일에 부딪힐지 모르니,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염해야 한다.” 머느리는 듣고 귀찮아하며 대꾸했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느리가 임신했을 때, 출산하기 하루 전날에도 현지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을 찾아가 납치된 남편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하마터면 경찰에게 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해 그믐날, 가족이 모여서 밥도 먹지 못했는데 경찰이 쳐들어와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경찰은 일 년 내내 아파트 아래에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폭력으로 문을 부수고 집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일체는 머느리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느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와 동료가 기쁘게 여행을 다니며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순식간에 땅이 한 줄 한 줄씩 갈라졌습니다. 산에서는 우는 소리와 놀라 비명 지르는 소리,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여기저기로 뛰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못했는데 산에서 떨어진 돌이 밀고 지나갔으며, 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파묻혔습니다.

머느리와 동료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머느리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가기 전에 당부한 말이 생각나 동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빨리 나 따라 불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머느리는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머느리의 동료도 구명기회를 잡은것을 의식하고 머느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들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두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나무 아래 숨어있으며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진이 점차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에 가득하던 사람 중에는 그들 둘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

다고 칭찬했던 경치와 기이한 봉우리들이, 지금은 인간지옥처럼 다 무너지고 산에는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신도 온전하지 않아 머리와 몸이 따로 놓여 있기도 하고 머릿골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둘은 이 광경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느리의 동료는 갑자기 닥쳐온 재난,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놀라 아무 사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와 머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가마솔 위의 개미처럼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망자 명단’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하루를 일 년처럼 보내던 중에 기쁘게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머느리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느리의 동료는 집에 돌아간 후, 자신이 겪은 신기한 일과 보았던 처참한 광경을 친지에게 말했고, 머느리는 더 격동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과정을 신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많은 사람을 삼퇴(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성명을 발표) 시켰습니다. 머느리는 아직 파룬따파를 수련하지는 않지만, 이 일을 통해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는 불가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악당이 대법제자를 박해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교란을 받으면 머느리는 이제 당당하게 경찰에 맞서곤 합니다. ◇

애심으로 충만 된 민족교육 여성 연구원 모함 납치 당해 (간략)

[밍후이왕] 헤이룽장(黑龙江) 성 쑤이화(綏化)시 교육학원에서 퇴직한 민족교육 부연구원 파룬궁수련생 고금숙은 2019년 2월 27일 변호사와 함께 기소장 변경을 받으러 안다시 법원에 갔다가 (안다시 법원에서 전화를 걸어와 오라고 통지했음) 오히려 불법으로 안다시 구치소로 납치됐다. 3월 14일, 변호사가 안다 구치소에 가 면회 중에 고금숙의 혈압이 260인데다 두통까지 있어 이는 아주 위험한 증상으로서 위험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 한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착한 사람

고금숙은 원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고, 파룬궁 수련을 통해 치료받지 않고 완쾌됐다. 고금숙은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의 딸은 엄마는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일찍 세상 떠기에 너무 일찍부터 가정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으며, 그의 두 남동생도 모두 그의 집에서 자라 장가도 보내주었고 자식까지 있다.

사회에서 고금숙은 또 늘 타인을 위해 착한 일을 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10살쯤 된 어린 소녀를 도운 적도 있다. 그때 마침 그 소녀의 생일이어서 고금숙은 친딸과 마찬가지로 소녀의 생일을 잘 차례주었다. 전후 20여일을 경과해 처음에는 상하이(上海)에 있는 그 소녀의 친부모를 찾았고, 친부모가 관계하지 않자 또 소녀의 양부모를 찾았다. 이 일은 당시 쑤이화 지역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제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바람을 녹이다'이며, 부제목은 '유랑 소녀의 이야기'였다.

고금숙은 업무상 더욱 근면하고 성실했다. 본래 쑤이화시 소수민족교육은 아주 략후했다. 그녀의 20여년의 노력으로 쑤이화시 소수민족 교육은 두각을 나타냈

데, 국가교육부로부터 소수민족 빈곤 지역 혁신교육 선진단위로 선정됐으며 국가 교육부 항목인 창의성 교육, 성 소수 민족교육 선진 공작자로 당선됐다. 선후 국내외 전업 간행물에 20여편의 소수 민족 변연과학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소수 민족 성 사회과학 우수과학 연구 성과 상을 두 차례 받았다. 그녀의 사적은 당시 조선족 헤이룽장 신문에 보도됐으며, 제목은 '젊은 여성 교육 연구원'이었다.



2. 사랑과 관심을 전하다가 모함납치되다

2018년 10월 10일, 고금숙과 송홍웨이(宋红伟, 양찬허우의 아내) 등은 란시현 베이안진(北安鎮)에서 납치된 양찬허우, 왕팡, 자오텍팅, 바이샤, 왕푸화의 구체적인 정황을 요해하고 그들에게 옷도 보내주려고 란시(蘭西)현으로 갔는데 란시현 국보경찰 룽리(荣力, 여)는 그들 세 사람을 위층의 국보대장 장타오(張濤)사무실로 데려갔다. 몇 분 후 장타오는 주관 국보 덩(丁) 국장과 공안국 법제사무실인원, 또 4~5 명의 특경 및 녹상인원들을 불러왔고 그들은 오자마자 녹상을 시작했다.

송홍웨이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사람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몇 마디도 못했는데 주관 국보 덩 국장은 너의 가방에 무슨 자료가 있으면 꺼내 읽으라고 했다. 송홍웨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정인줄을 모르고 가방에서 <경찰에게 보내는 편지>를 꺼내 읽었

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읽지 못하게 하면서 또 고금숙더러 읽으라고 했다. 고금숙은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협력하지 않았다. 장타오등은 그들의 가방을 빼앗으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선후 20분좌우에 고금숙, 송홍웨이, 우징화(吴景华)를 1층 심문실에 가두었다. 그때 고금숙의 가방에는 현금 2600여위안과 열쇠 등 개인 물건이 있었는데 전부 빼앗겼다.

고금숙은 강제로 철 의자에 앉아 불법심문을 당했고 후에 불법으로 란시(兰西)구치소에 감금됐다.



▲재연도: 철 의자

10월 11일, 장타오와 쑤이화시 베이린구 첸진파출소(绥化北林区前进派出所)의 왕웨이(王伟)는 불법으로 고금숙의 집을 수색해 대법(大法) 사부님의 법신상과 대법(大法)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해 갔으며 불법으로 사진을 찍었다.

2018년 10월 15일, 란시현 국보대장 장타오와 룽리등은 소위 증거를 위조해 고금숙 등 7명을 안다시 검찰원에 보낼준비를 하고는 안다병원에게 신체검사를 했다. 고금숙과 왕푸화의 혈압이 너무 높아 란시 국보는 두 사람에게 보석 처리를 강요한 후 집에 보냈다..

11월 20일, 란시현 국보경찰 장타오와 룽리는 19일에 불법으로 내린 체포 증을 갖고 쑤이화에 와 왕푸화, 바이샤를 안다구치소에 불법 (4면에 계속)

당신은 알고 있나요



●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대표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

● 2003년 11월 8일, NTD TV에서 제작한 “텐안먼 분신자살” 진상기록영화 ‘위화’는 제 51회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의 명예 상을 수상했다. ◇

(1면의 계속)

저축해 놓았다. 최고위급 중국공산당 영도자의 미국에 있는 자산은 천억 달러 계수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장쩌민의 손자 장쯔청(江志成)이다. 그는 현재 미, 중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장쯔청은 장가 집(江家)을 대표해 기금, 주식, 은행, 신탁, 황금 선물, 부동산 등을 포함한 해외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해외 소식에 따르면 장가(江家)집의 미국에 숨겨놓은 자산만해도 5000억 달러라고 한다.

미국은 바람을 피하는 곳(避风港)이 아니고 인권유린자는 우선 제지당한다

미국의 최신 정책으로 중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이 사악한 정책을 제정한 인권 망나니 장쩌민은 의심할바 없이 미국의 제재 대열에 들어갈 것이며 우선 먼저 제재 당할 것이다.

현재는 미 국무부에서 박해를 받은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정부

로 하여금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증거다. 미국의 이 정책 변화는 박해에 참여했던 중국공산당 관리가 자신에게 남겨놓은 퇴로를 막아 버린 것이다.

즉시 손을 떼고 뉘우치면 살길이다

이는 중공관원으로 말하면 마치 청천벽력과 같다. 하지만 워싱턴 특구 파룬따파학 회주석 라이싼타오(赖善桃)박사는 계속 중국공산당을 따라 간다면 당연히 말로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뉘우치면 살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빨리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고, 즉시 박해에 참여하지 않고, 중공과 함께 하지 않으며 인민을 도와 이 집권체제를 해체하며, 이미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고했다. ◇



(3면의 계속) 감금하고, 그날 고금숙은 찾지못하자 그의 올케를 찾아가 있으며, 또 고금숙의 외손녀의 학교까지 찾아가 어린이는 놀란 나머지 3일이나 감히 학교에 가지 못했다.

11월 22일, 장타오는 또 쑤이화에 있는 고금숙의 올케를 찾아가 고금숙의 체포 증을 보이고 나서 48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올케(담보인)를 잡아 가겠다고 했다.

고금숙은 란시국보경찰 장타오를 검찰원과 법원에 고소했다. 11월 23일, 고금숙은 올케가 연루되는 것이 걱정돼 변호사와 함께 란시에 가서 국보경찰을 대면했다. 란시국보경찰은 변호사가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후에 고금숙을 안다로 데려가면서 변호사는 안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안다에 간 후 고금숙을 구치소에 가두고 우선 병원으

로 끌고가 신체검사를 시켰다. 결국 혈압이 260이되어 란시국보장타오는 실망했으며, 부득불 또 고금숙에게 보석 심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2만위안의 보증금을 받치게 하고는 아무 때나 부를 때 오면 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금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올 때 고금숙은 자신의 물건과 2600위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룽리는 그 돈으로 밥을 먹었다고 하면서 액수를 초과해 걱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6개월간 고금숙은 여러차례 소란을 받았다. 그중 5차례 불법심사 당하고, 5차례 불법으로 신체검사 당했으며, 3차례 불법으로 보석 심사를 당했다. 이미 60여세인 고금숙은 박해로 고혈압이

생겼다. 몇 백 공리의 노정, 쑤이화로부터 란시까지. 또 쑤이화로부터 안다까지, 불법으로 7차례 불리워 오갔는데 3~4시간, 혹은 6~7시간이 걸렸으며 이것도 고속도로로 가는 시간이며 택시로 가면 한번에 비용이 600위안정도 나온다. 더욱 그녀가 매번 불리워 갈 때마다 범인 취급을 했으며, 강박으로 2차례나 수갑을 채웠으며, 3차례 철 의자에 앉혔고, 악인은 그녀한테 인신모욕을 감행했으며 인격도 모욕했다. 정신과 육체상 박해에다 경제상의 박해까지 더하는 바람에 고금숙과 가족들은 심신에 아주 큰 상해를 받았다. (2019년 5월 24일, 고금숙은 1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상소를 제기했다.) ◇